S#5. 집 / 거실 — 늦은 밤 (INT.)

어두운 거실.
부엌에서 새어 나오는 작은 불빛.
은주가 혼자 식탁에 앉아 있다.
앞에는 물 한 잔이 놓여 있다.
은주는 멍하니 컵을 바라본다.
방문 여는 소리.
엄마가 거실로 나온다.

엄마 : 안 자고 뭐 해.
은주 : 그냥.

엄마가 은주의 맞은편에 앉는다.
잠시 침묵.

엄마 : 아까는 엄마가 좀 성급했지.

은주는 고개를 숙인다.

은주 : ……아니.
엄마 : 네가 싫다고 하는데 엄마가 나서서 미안해.

은주는 대답하지 않는다.

엄마 : 그냥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나더라. 내 귀한 딸인데.

잠시 침묵.

은주 : 엄마.
엄마 : 응.
은주 : 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.

엄마는 말없이 듣는다.

은주 : 잘하고 싶었어.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…….
근데 내가 실수 한 번 크게 하니까 다 끝나더라.

엄마는 은주를 바라본다.

은주 :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데…… 아무 말도 못 했어.

은주는 손끝을 만지작거린다.

은주 : 내가 잘못한 거니까.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었는데…….

말을 멈추는 은주.

엄마 : 응.
은주 : 도저히 못 하겠더라.

은주가 고개를 숙인다.

은주 :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.

눈물이 떨어진다.

은주 : 왜 나는 뭘 해도 잘 안 될까.

엄마는 은주의 말을 끊지 않는다.

은주 : 언니는 잘하고 있는데, 나만 계속 제자리인 것 같고.

은주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는다.

은주 : 엄마…….
엄마 : 응.

은주는 엄마를 바라보려 하지만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한다.

은주 : 나 앞으로 어떡하지?

엄마는 조용히 은주를 바라본다.

엄마 : 엄마도 몰라.

은주가 고개를 든다.

엄마 : 네가 앞으로 뭘 하게 될지.
잘못한 건 바로잡아야지. 다시 시작할 일 있으면 다시 시작하고.

은주는 조용히 듣는다.

엄마는 은주의 손을 잡는다.

엄마 : 근데 그거랑 엄마가 네 편인 거랑 무슨 상관이야.

은주의 눈가가 다시 붉어진다.

엄마 : 네가 잘나서 내 딸이니?

은주는 대답하지 못한다.

엄마 : 그냥 엄마 딸이지.

은주의 눈물이 떨어진다.

엄마 : 엄마가 너 하나 못 먹여 살리겠어.

은주가 웃으려 한다.
하지만 웃음이 채 나오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린다.
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운다.
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은주 곁으로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준다.
엄마의 옷자락을 잡는 은주.
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.
은주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든다.
엄마가 은주의 등을 천천히 토닥인다.